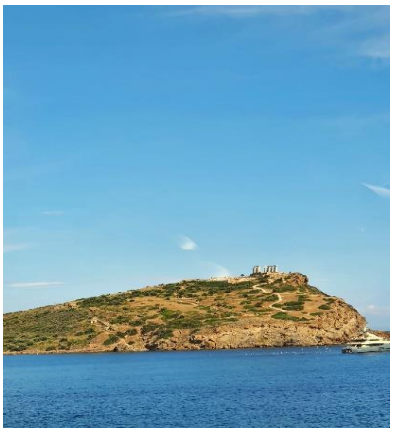
그리스를 그리다: 그리스의 바다

그리스(Greece)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럽의 시작이자 그리스의 땅끝 마을인 수니온(Sounion, Σούνιο)이었다. 아테네의 빼곡한 건물을 빠져나와 넓은 들판과 산을 배경 삼아 펼쳐진 에게해의 굽이치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푸른 수채화 물감의 투명함을 담은 에게해(Aegean Sea)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여정은 마치 『오디세이아』(*Odyssey*) 속 오디세우스(Odysseus)의 여정과 닮아 있었다.

Simeon Netchev. *Odysseus' Ten-year Journey Home.* Digital Image. World History Encyclopedia. 2022년 5월 23일, https://www.worldhistory.org/image/15906/odysseus-ten-year-journey-home/

그리스 신화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10년간 바다를 떠돌며 극적인 모험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트로이 전쟁 후 그의 고향인 이타카 섬(Ithaca, Ιθάκη)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에서 험난한 여정을 겪는다. 긴 여정 중 그는 여러 위협적인 존재들을 만난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결국 20년 만에 이타카 섬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테네(Athens, Αθήνα)에서 에게해를 거쳐 산토리니(Santorini, Σαντορίνη) 섬에 이르는 우리의 여정도 오디세우스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디세우스처럼 한국에서 학기를 마친 나도 '그리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떠돌며 수많은 경험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었다.

해안선의 끝을 알리는 수니온곶의 깎아지른 절벽 위, 웅장한 포세이돈 신전(Temple of Poseidon)이 모습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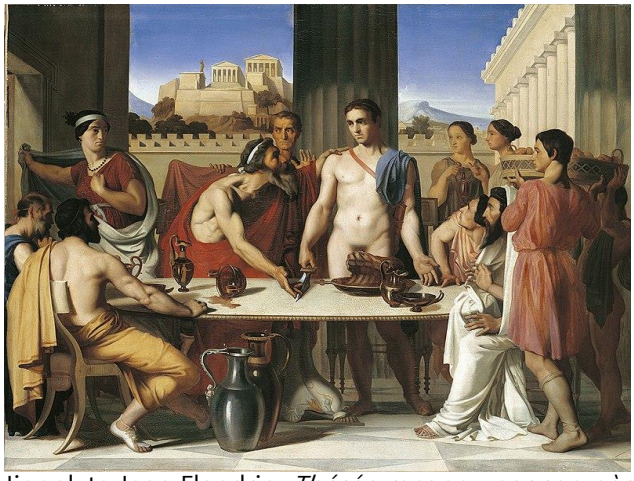


수니온 곶 위 포세이돈 신전

포세이돈 신전

Noël Hallé. *La Dispute de Minerve et de Neptune pour donner un nom à la ville d'Athènes*. 1748. Oil on canvas. Louvre museum, Paris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Athena)는 아테네 도시를 자신의 관할 아래 두고자 제우스(Zeus)의 허락을 구하고, 회의를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을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정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포세이돈은 말을, 아테네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고, 아테네 사람들이 올리브를 선택하며 도시의 수호신은 아테나가 된다. 그러자 포세이돈은 파도를 일으켜 아테네인들을 괴롭혔다. 분노한 포세이돈을 달래기 위해 아테네인들은 그를 위한 신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수니온의 포세이돈 신전이었다. 이 신전은 남은 터와 15개의 기둥만으로도 포세이돈의 기백과 권위를 보여주었다. 수니온곶에 올라 주위를 바라보니, 그리스를 사랑한 시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의 "수니온 대리석 절벽 위에 나를 세워라 / 그 곳에 있는 것은 나와 파도 뿐 / 나와 파도와 서로의 속삭임을 들어라 / …,(Place me on Sunium's marbled steep, / Where nothing, save the waves and I, / May hear our mutual murmurs sweep / …,)" (lines 91-93)라는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절벽 위의 웅장한 신전,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푸른 바다는 절벽을 때리며 파도를 일으켰다. 파도 소리가 공기를 울리자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끝을 알 수 없는 에게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에게해의 파도 소리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Hippolyte Jean Flandrin. *Thésée reconnu par son père*. 1832. Oil on canvas. Beaux-Arts de Paris,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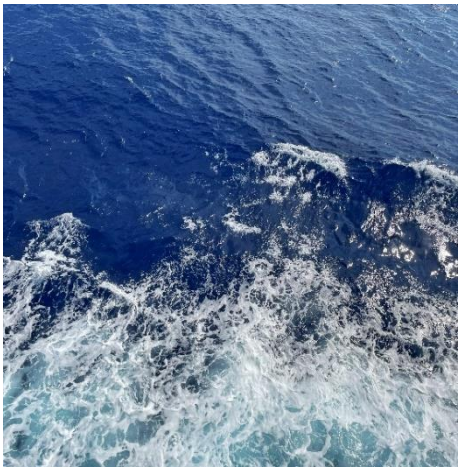
가장 먼저 바다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에게해 명칭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아이게우스(Aegeus)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테네의 왕이었던 아이게우스는 미노타우르스(Minotaur)를 퇴치하러 가는 자신의 아들 테세우스(Theseus)에게 검은 돛을 달고 출항한 후 살게 된다면 흰 돛으로 바꿔서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 테세우스는 크레타(Crete, Κρήτη)의 공주 아리아드네(Ariadne)의 도움으로 미노타우르스를 무사히 퇴치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부탁을 잊고 검은 돛을 단 채 돌아온다. 매일 수니온곶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이게우스는 돌아오는 배의 검은 돛을 보고, 테세우스가 죽었다는 생각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게 된다. 아이게우스가 몸을 던진 그 바다가 바로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진 '에게해'였다. 신화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게우스의 눈물을 비롯한 많은 신화를 담고 있는 이 바다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이 되어 그리스 각

지의 문명을 모으고 세계로 퍼뜨리는 길이 되었다.

산토리니로 향하는 페리

바다가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따라, 나는 그리스 본토에서 더 나아가 바다로 향했다. 그리스 본토의 남단에서 키클라데스(Cyclades, Κυκλάδες) 제도 최남단의 산토리니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오전 7시에 출발하는 페리에 탑승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던 나는 배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었다. 승선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느끼며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시간은 멈춰 있는 듯 더디게 흘렀다. 페리에 타고 있던 매순간 고향으로 향하는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트로이 전쟁터와 이타카 섬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아들인 폴리페모스(Polyphemus)를 죽인 일로 포세이돈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그 벌로 언제 고향에 닿을지 모르는 여정을 10년간 지속해야 했다. 간절히 바라던 산토리니에 닿기까지 얼마나 더 가야하는 지 알 수 없었던 나는 그러한 오디세우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항구를 출발한 페리는 포세이돈의 미움을 산 오디세우스의 배가 된 듯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만든 페리는 무력했고, 배가 흔들릴수록 머리가 아팠다. 나는 멀미를 달래고자 갑판으로 나갔다. 갑판 위에 나가 섰을 때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배를 때리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나를 반겼고, 곧 머리를 울리던 고통이 사라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것도 자연이지만, 이러한 시련을 해결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 또한 자연이라는 것은.


페리에서 바라본 에게 해의 모습

오직 에게해만이 간직한 파란 물결을 보며 나는 바다라는 곳이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바다라는 공간은 인류가 사는 지구라는 공간의 시작이자, 생명체가 시작된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바다는 인간에게 시작의 기회만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르는' 책임감 있는 공간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문명이 시작되고 퍼지는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신화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문화의 바탕이 되었고, 바다를 통해 널리 퍼졌다. 바다를 통해 널리 퍼진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충돌하며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바다를 통해 퍼진 문화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영혼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파괴시키기도 했다. 바다는 인간에게 조화와 파괴를 모두 보여주었고, 무엇을 선택하여 나아갈 것인지는 인류의 몫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

페리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풍경

나와 바다 그리고 인간과 바다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산토리니에 도착했다. 산토리니에서 우리를 반긴 것은 거대한 절벽과 바위산이었다. '산토리니'하면 떠올리는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산토리니'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사실 '산토리니'라 불리는 이 섬의 그리스 정식 명칭은 '티라(Θήρα)'이다. 산토리니라는 명칭은 13세기에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다. 산토리니라는 이름은 당시 산토리니에서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Eirene)'를 모시는 것을 보고 베네치아 상인들이 섬을 '산타 이리니(Santa Irini)'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산토리니 섬에는 여러 마을이 있다. 그 중 내가 방문하게 될 마을은 주도인 피라(Fira, Φηρά) 마을, 이아(Oia, Οία) 마을, 그리고 카마리(Kamari, Καμάρι) 해변이었다. 페리에 내려 버스를 타고 이동해 카마리 해변에 있는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당일의 목적지인 이아 마을로 가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올랐다.

우리가 사진이나 방송에서 흔히 접하는 산토리니의 모습은 절벽 위 흰 색으로 칠해진 집과 파란 지붕의 교회가 있는 이아 마을 그 자체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산토리니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먼 길을 가야 했다. 버스로 30분간 이동한 끝에 나는 드디어 이아 마을에 도착했다. 여행 프로그램이나 사진을 통해 자주 접했던 이아 마을이지만, 실제로 그곳에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무엇보다 집에서 편안히 TV를 통해 보았을 때와는 달리 새벽부터 숙소를 떠나 페리와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이동한 끝에 도달하게 된 목적지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산토리니를 대표하는 흰 벽과 파란 지붕은 절벽이 마주하는 푸른 에게 해와 어우러져 더욱 빛났다. 이아 마을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그리스의 정취를 느끼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해가 지

이아 마을

기 시작했다. 나는 이아 마을의 석양을 보기 위해 세계 3대 석양 포인트로 꼽히는 굴라스 성채로 가, 떨리는 마음으로 해가 떨어지길 기다렸다. 8시가 되자, 마을의 하얀 벽을 가진 건물들이 모두 석양의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얀 햇빛을 받아 하얗게 부서지던 낮의 이아 마을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푸른 에게해도 가까워지는 태양에 붉게 물들고, 마침내 찬란한 빛이 바다를 향해 떨어졌다. 절벽 위 흰 건물과 드넓은 에게해와 하늘 그리고 태양이 어우러져 어떤 것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광경을 빚어냈다.

굴라스 성채에서 바라본 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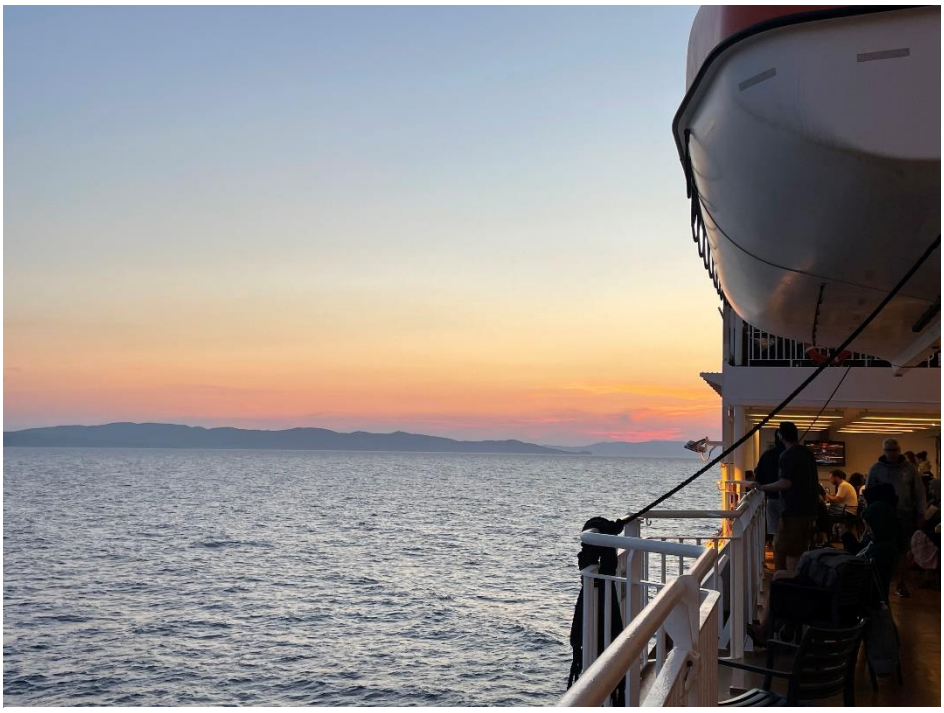
순간의 정적 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굴라스 성채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곳에 닿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으로 쌓인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태양이 수평선 뒤로 모습을 숨긴 후로는 바다와 같은 푸른 빛이 마을을 물들였고, 해가 진 반대편 하늘에는 보란 듯이 커다란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파 속에서 마을을 빠져나가면서도 해가 떨어진 바다를 계속 돌아보았다. 너무 찰나의 그 순간이 아쉬워서, 그리고 석양이 남기고 간 어둠조차도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피라마을

둘째 날, 나는 피라 마을로 향했다. 이아마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마을이었다.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마을과 그 너머의 마을 분위기의 대조가 흥미롭고, 아름다웠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쪽은 많은 인파와 계속 이어지는 좁은 골목들이 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끄는 곳이었고, 그 너머의 마을은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식당이 줄지어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떠들썩한 바다 쪽 골목에서 길을 잃고 계속 걷다 우연히 언덕을 넘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다. 하나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확연히 달라지는 분위기에 시공간을 넘어 다른 세계로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티라 섬은 '새로움'으로 나를 매번 놀라게 했다. 알 것 같던 섬이 매번 낯설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새로움

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티라는 '모험'과 '낭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모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매 순간이 찬란했다. 티라를 떠나는 페리에 다시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섬을 돌아보았다.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러니 그때도 내게 다른 새로움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하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 에게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방이 오직 수평선만이 존재하는 바다 위에서 바다를 향해 가라앉는 해는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웠다. 에게해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만으로 모두를 모험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오디세우스가 에게해에서 모험을 했던 것은 사실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 페리에서 바라본 일몰

수니온과 아테네에서 시작해 에게 해를 거쳐 산토리니에 이르는 여정은 나로 하여금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되새겨보게 했다. 오랜 기간 바다에서 떠돌며 모험을 하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에 닿는 오디세우스처럼 우리도 긴 시간 동안 육지로, 바다로 이동하며 결국 우리가 바라던 산토리니에 도착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하루빨리 고향에 닿길 바라는 오디세우스의 염원을 느끼기도 했고, 바다를 누비며 위대한 모험을 한 젊은 오디세우스의 용맹함을, 험난한 모험 끝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 그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에게해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가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와, 인간을 모험하게 하는 에게해를 오롯이 느꼈다.

어쩌면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에게해를 지나는 모두가 그와 같은 모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를 저어라, 줄지어 앉아서
철썩거리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자. 나의 목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석양 저 너머로,
모든 서녘 별이 물에 잠기는 저 너머로 항해하는 것"
(58-61행)

"Push off, and sitting well in order smite
The sounding furrows; for my purpose holds
To sail beyond the sunset, and the baths
Of all the western stars, until I die." (58-61)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Ulysses Deriding Polyphemus*. 1829. Oil on canvas. The National Gallery, London.

모험을 끝내고 자신의 섬 이타카로 돌아가 노년기를 보내는 오디세우스를 상상한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의 시 「율리시스」("Ulysses")의 한 구절이다. 오디세우스는 10여년간 에게해를 떠돌며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늙어서도 계속 바다를 그리워하고, 다시 바다로 나아가 모험을 하길 기원한다. 다시 에게해로 뛰어들어 행복의 섬을 찾아 나서길 바라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디세우스의 끝나지 않는 모험,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에게해.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경험한 나.

이번 답사에서, 혹은 나의 인생에서 에게해를 떠도는 것은 이 페리에서 내리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와 같이, 나는 계속해서 이 바다와 모험을 그리워하며 바다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언젠가가 되면, 그 사이 바다에 쌓인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테네 피레우스 항구에 도착한 페리